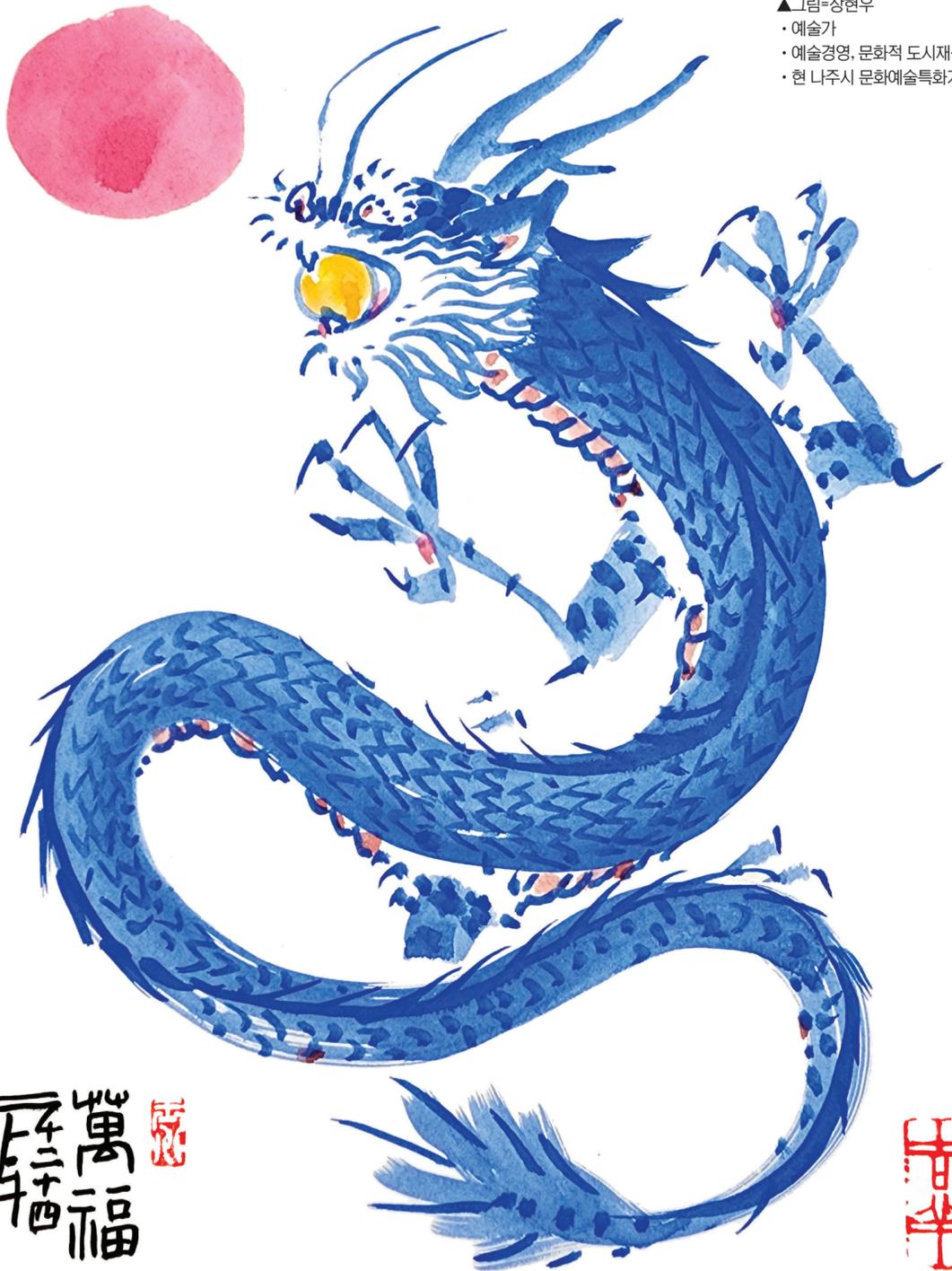


청룡, 풍어·풍년의 상징... '비룡승운' 비상하는 해 되길

〈飛龍乘雲〉

▲그림=장현우
· 예술가
· 예술경영, 문화적 도시재생 전문가
· 현 나주시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세상의 조화·이치 관장하는 상상 속 영물
속담·유물과 창건 신화·설화 등에 자주 등장
하늘과 왕권 상징... 입신출세·신분상승 표상

2024년 갑진년(甲辰年), 육십 간지의 41번째인 '청룡의 해'를 맞이했다.

용은 예로부터 봉황, 해태 등 다양한 신물과 함께 역경 끝에 뜻하는 것을 이뤄내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은 지엄한 자태를 뽐낸다. 발톱은 오행사상에 의해 다섯 개(5조룡)로 묘사되곤 하는데 그 이치가 신묘하다.

세상의 조화, 이치를 관장하는 용은 상상 속 영물이다. 그런 탓에 다양한 속담과 격언, 유물과 창건 신화, 설화 등에 자주 등장한다.

용은 하늘과 왕권의 상징으로 높은 신분을 빚대 쓰이곤 하는데 왕실의 옥새, 임금의 시무복인 곤룡포 등에 용문양이 자주 쓰이곤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용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이들을 위한 상징으로 묘사돼 왔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속담 등에서 용이 신분 상승의 표상을 하는 것이 그 예. 또 비룡이 날아 올라 등용문을 거쳐 입신출세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설 삼국지 속에서는 제갈공명이 유비의 눈에 띄지 않았던 시절 별명이 누워있는 용이라는 의미의 '와룡' 선생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정권에 진출하기를 기다리며 시기를 가능하는 유력 주자를 '잠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기회를 만나 와룡봉추(臥龍鳳雛)할 잠재력을 가진 인물을 용에 빗대어 온 셈. 그러면서 평민들에게 '용'은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갑진년이 청룡의 해인 까닭은 60갑자의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조합한 결과다. 용띠인 진(辰)은 양의 기운을 가져 천간 중 양의 글자인 '갑, 병, 무, 경, 임'과 합을 이룰 수 있다.

그 결과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5방색을 배치해 갑진은 청룡의 색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병진, 무진, 임진년은 순서대로 적, 황, 흑룡에 해당한다.

용을 인용한 사자성어나 고사도 많다. 처음에는 왕성하나 끝이 흐지부지한 용두사미(龍頭蛇尾)부터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쳐서 대업을 완수한다는 화룡점정(畫龍點睛)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용꿈은 돈 주고도 안판다고 한다. 한동안 움크려 있는 인고의 시간 끝에 저 멀리 비상하는 용처럼, 갑진년에는 모두다 비룡승운의 기개로 뜻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한다.

/최윤희 기자 rubi@kwangju.co.kr



知天命的 甲辰年 운세



2024 갑진년은 12지 동물 중에서 청룡의 해로써, 인덕과 신의 속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표징하는 바, 극상의 절묘함이 미증유의 통천지수를 이끄는 온 세상을 암울하게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이는 성리이니라.

아득히 머나먼 동방 끝, 용반호거의 천산만수로부터 시작된 서기의 운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푸른 용이 추상 같은 위엄 속에 눈부신 자태로 승천하면서 신비롭기 그지없는 여의주로 천생재주를 부리며 길상과 복덕이 깃들기를 축원하니, 그 현현한 기운이 창조 혼원의 천신지기에도 통하면서, 서색의 길조가 천양지간에 두루 미치게 되리라. 올해의 태세는 사물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며 베푸는 덕망과 신위적 권능 그리고 하늘을 뛰어 넘고 세상을 뒤덮을 만한 청룡의 웅혼한 기상에 힘입어 청사에 길이 빛날 배달 민족의 신기원이 찬란하게 펼쳐지리라.

子 36년생 학교인 신념으로 성실하게 초지일관한다면, 훨씬 나은 성과를 이루기에 충분한 운로이니라. 48, 60년생 화창한 봄에 꽃이 만발한 가운데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 목표로 하였던 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기의 성과를 거두며, 기뻐하는 동세로다. 72년생 광활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 전답으로 만드는 재주를 부리는 격이니, 많은 이익을 보면서 흥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 84, 96년생 뉘 글을 가지고 말 글로 써 먹는다 하였으니, 자신의 역량과 경력만으로도 어떻게 활용하는 나에 따라서 높은 평가로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길사가 따르리라.

丑 37, 49년생 두 독에 누운 소는 양쪽의 모든 인덕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듯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계제에 놓여 있다. 61, 73년생 구름 낀 하늘이라 하더라도 꺼리지 않고 임하다 보면, 마치 않아 밝은 햇살이 얼굴을 내보일 것이니라. 85년생 샘을 파던 흙 속에서 물 대신 금이 나오는 격이니, 의외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판국이니라. 97년생 어두컴컴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등대를 찾은 격이니, 어려움에 압박하였을 때 활로를 되찾는 행운의 암시가 있었다.

寅 38년생 긴요한 핵심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만 다가오는 경쟁을 맞이하게 되리라. 50, 62년생 정해진 목표에 대해서 일관된 신념으로 부단한 전진을 계속한다면, 분명고 소기의 성과 뿐만 아니라 부가적 이익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리라. 74, 86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제3의 기회를 접하게 될 수도 있는 운로이니, 무난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하다. 98년생 학수고대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卯 39, 51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고, 물고기가 큰 물을 만나니 호기의 절정을 맞이한 양상이

다. 자신의 계획이나 야망을 제대로 펼쳐 볼 수 있는 적기이다. 63년생 도전의 용기와 지속적인 끈질김이 수반된다면, 찬란한 영광과 늘어난 재물 속에서 만족스런 웃음이 끊이지 않으리라. 75, 87년생 칭찬과 덕담을 많이 하는 것이 행운으로 이끄는 요체의 성국이라 할 것이다. 99년생 생소한 것 속에 행운이 깃들 수 있는 기운이니,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辰 40, 52년생 숲 속에 은거하던 호랑이가 사냥감을 좇고자 튀어나오는 형국이니, 그 동세가 가히 역동적이라 할 것이다. 64년생 구름 사이에 숨어 있는 달이 환한 얼굴을 내비치니, 광명 천지로세! 가던 길을 재촉하고, 하던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돌아왔다. 76, 88년생 평소 애 썼던 덕과 공이 무르익어 위기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되어 줄 수도 있으니, 항상 배려하는 자세와 화목하는 분위기의 유지가 생활화되어야 할 것이다. 00년생 매사에 정황을 신중히 파악하고 주도면밀하게 실행한다면, 성공의 열쇠를 거머쥐게 되리라.

巳 41, 53, 65년생 남을 위해 하는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더불어 살아 가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리라. 77년생 때로는 전속력으로, 때로는 숨고르기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절실히 필요한 국면이니, 기민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임기응변해야 할 것이니라. 89년생 가을 정취를 즐기는 마음이 한가롭기 그지 없도다. 일 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이니, 맛과 낭만이 넘치는 정황이로다. 01년생 가을 때 개미가 거동을 하면 비가 온다 하였으니, 길조를 놓치지 않는다면, 행운의 힌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니라.

午 42년생 벼슬은 높이고 마음은 낮추라 하였으니, 매사에 겸손한 가운데 신중한다면, 상서

로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리라. 54, 66년생 가족이 있어야 털도 나는 법이니, 구실과 근원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가꾸어라. 토질은 좋으니 무럭무럭 자라서 수고로움에 보답할 것이다. 78, 90년생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실태이니,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의 열쇠를 거머쥐도록 하자. 02년생 제비가 처마 밑에 날아들어 지저귀니 복덕과 풍년을 상징하는 풍경이로다. 매사에 순리대로 임한다면, 행복이 넘쳐나겠다.

未 43, 55년생 호숫가에 낚시를 드리우니 여기 저기에서 물고기가 때를 지어 물려든다. 주도면밀한 계획과 과감한 착수가 무리없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달성하게 되리라. 67년생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간다 하였으니, 매사에 때를 놓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라. 지속적인 진력 속에 알찬 결실이 맺힐 것이니라. 79년생 멀리 떨어진 개구리는 몸을 움추리는 법이니,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가 복됨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91, 03년생 두드리는 문마다 기다렸듯이 열리며 연이은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니, 어떠한 노파심이나 경계심도 필요치 않음이니라.

申 44년생 일대광풍과 폭우가 지나 간 뒤에는 다양한 호조건과 기회들로 넘쳐날 것이니, 급변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빈틈없는 준비가 절실한 위상이니라. 56, 68, 80년생 개울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 강에 이르니, 넓은 세상을 만났도다. 백절불굴의 의지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대업을 이루는 장거가 보장된 셈이로다. 92년생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 람은 큰 사람 덕을 보는 법이니, 진정성 있는 처세 속에 깃든 서래운도의 숨은 그림을 찾아내 보자. 04년생 보리 밥알로 잉어 낚시를 한다 하였으니, 최소한의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리라.

酉 45년생 단오절의 부채요, 동지 때의 책력이 라 할 수 있으니, 시의적절하게 쓰이게 될 운로로다. 자신의 능력이 녹슬지 않도록 가다듬으며, 소인을 다다라 보면, 뜻밖의 귀인이 부를 때가 있으리라. 57년생 동지를 박차며 힘차게 날아 오를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였으니, 즉행의 조치가 절실하다. 69년생 불비 맞은 새싹이 날로 푸르려 간다. 꺾이는 일이 시의적절하니, 날이 갈수록 탄력이 생기고, 모양새를 갖추게 되리라. 81, 93, 05년생 무턱대고 쓴 화살에 따오기가 맞는 격이니, 우연히 시도한 일이 의외의 성과로 이어지겠다.

戌 46, 58, 70년생 기민한 임기 응변과 생존 감각을 살린다면, 쾌재를 부를 일이 날려 있다. 82년생 문풍지 떨어지자 풀비 생기는 격이니, 요긴할 때 우연한 기회와 맞아 떨어지면서 경쟁을 누리는 태양이라 할 것이다. 94년생 갑갑한 주변의 환경 정리와 무난한 대인 관계에서 길사가 생길 수 있음을 새겨 둘 필요가 있는 운로이니라. 06년생 신비로운 뿔을 가진 사슴이 평화로운 적막의 숲속으로 이끄니, 이체를 띠기에 충분하다. 파격적인 제안이나 정보를 안내하는 협조자와의 인연이 예견되는 국량이니라.

亥 35년생 나무를 깎아 지계를 만들고 수차를 돌려 방아를 찧는다 하였으니, 알뜰한 생활 속에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며, 화목과 번영을 기약하는 태양이로다. 47, 59년생 돌진 가재요, 산진 거북이에 비유할 만하다. 자신이 처한 배경이나 환경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니, 굳은 의지로 대응해 볼 만한 도량이니라. 71년생 물 본 기러기요, 꽃 본 나비라 할 것이니, 평소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해 오던 사람을 만나거나 대상을 찾게 되어 행복 지수가 매우 높아지는 판국이로다. 83, 95년생 타인에게 의탁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자신감을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